하게 허리를 내고 이 허리에서 上·下로 迎蓮과 覆蓮의 簡古한 單線刻 蓮瓣文을 새겨 넣었으며 이 臺座의 各面 下端部 中央에 못구멍이 하나씩 뚫려져 있다。이 못구멍은 木造나 또는 다른 形態의 下臺에 連結되었던 자취로 보여지며 보기 드문 臺座形式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背面에 鑄造時에 남겨진 缺失部가 있는 外에는 거의 完形이며 相好의 印象、그리고 頭大前屈한 푸로필과 素朴한 衣褶의 處理 等으로 보아 李朝初期頃의 作品이 아닌가 想像되었다。

咸安 長春寺의 石造藥師如來坐像

鄭 永 鎬



慶南 咸安郡 漆北面 榮東里의 長春寺 龍華殿에 奉安하고 있는데 原來는 오래前에 境內의 竹林에서 作業中 出土되었다고 한다(李爆佳持談)。光背와 一石인 坐像은 거의 圓刻에 가까우며 出土時 各部에 若干의 磨痕이 있었으나 現在는 白粉을 입히고 特히 兩眉 眼·口唇 等에 赤·綠色을 漆하여 本然의 姿態를 잃은 느낌을 주고 있음은 哀惜한 일이다。螺髮의 頭頂에는 肉髻가 있고 白毫가 있으며(原來는 痕跡이 있었으나 後補) 兩耳는 길게 내려졌다。右肩偏袒한 衣文은 雄麗하며 左腕을 걸쳐 兩膝을 덮었고 手印은 右手를 結跏趺座한 右膝上에 얹고 左手로는 臍前에서 寶珠를 받들고 있다(寶珠의 赤色漆은 後補)。光背는 圓形으로 頭·身 兩光이 周緣에 火焰文이 있으며(現在는 色漆) 頭光에는 蓮瓣이 돌려져 있는데 그 端雅한 彫法이 注目되었다。身光의 內緣에는 紋樣이 彫刻된 듯하다。全體彫刻이 均整한 듯하나 身高에 比하여 膝高가 낮은 편이다。坐像의 肩部와 手印等 光背의 各部彫法으로 보아 高麗中期의 作品으로 推定된다。實測値(cm)는 坐佛 高 七三(肩幅 三六 膝高 一三 胸幅 二三 膝幅 五〇) 光背高 九五·五 廣幅 六六 下幅 五六이다。

이 外에 大雄殿 前庭에 石塔一基와 拜禮石、蓮華臺石 等 各一座가 遺存하는 바 石塔은 移建한 바로 現在 四層이나 本來는 五層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屋蓋받침이 三段씩이고 落水面 轉角 및 基壇의 手法으로 보아 麗代 中葉의 作品으로 推定된다。拜禮石은 矩形으로서 上面의 伏蓮과 側面의 眼象이 注目되었으며 蓮華臺石은 石燈材로 쓰여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一座 모두 年代는 高麗中期의 作品으로 推定된다。實測値(cm)는 石塔 高 三九〇 拜禮石 六〇×四八 (高 二六) 蓮華臺石 徑 七三 高 三一이다。

資 料

谷城郡 石谷面 石谷里 石造如來立像

申 榮 勳

큰 길 가 논두렁에 서 있는 巨像이나 무릎 以下는 埋沒되었다。重厚한 顔面에 높직한 肉髻를 가졌고 머리 뒤에 둥그스럼한 頭光이 빛난다。목은 긴 편이나 三道는 없고 法衣는 通肩인데 顔面과 衣紋의 大部分은 磨滅되어 細部를 볼 수 없다。(總高 九·八尺 幅 三·五尺 厚 三·四尺)。